



정치테러 재발에 대한 국무총리 긴급지시문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 이어 오늘(25일) 또 다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괴한에 피습 당한 것과 관련해,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.
 -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.
 - 아울러 배 의원께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
- 한 총리는 이어 “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”과 “총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안전 확보와 유사범죄 예방에 전력을 쏟아달라”고 경찰청에 지시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오정우	044-200-2082
	일반행정정책관실	담당자	경 정 김세준	044-200-2085